

김광현·양현종의 코리안 데이, 승리 없었지만 호투 빛났다

김광현, 메츠전 4이닝 1실점...뛰어난 위기 관리 양현종, 미네소타전 3⅓이닝 8탈삼진에 1실점 KBO리그 좌완 양대 산맥 더 큰 무대에서 가치 뽐내

1988년생 동갑내기들이 '코리안 데이'에서 나란히 호투를 펼쳤다. 승을 쌓진 못했지만 팀 승리에 발판을 놓는 역투를 선보였다.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은 6일(한국시간) 2021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했다.

지난해부터 빅리그 무대를 누리고 있는 김광현과 이번 시즌을 앞두고 미국으로 건너간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서 같은 날 등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트는 김광현이 끊었다.

김광현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더블헤더 1차전에 나섰다.

3회까지 무실점 피침을 이어간 김광현은 4회 볼넷 2개와 안타 1개로 무사 만루에 몰렸다.

그러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김광현은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으로 실점을 최소화했다. 김광현은 제임스 맥켄에 땅볼을 유도했다. 3루수 놀란 아레나도가 타구를 잡았다 놓쳐 3루 주자가

홈을 밟았지만, 2루 주자는 3루에서 아웃됐다. 이어진 1사 1, 2루에서는 조나단 비야와 엘버트 알모라 주니어를 연달아 삼진 처리하고 더 이상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

4회까지 66개의 공을 던진 김광현은 4회말 1사 1, 3루 타석에서 대타와 교체됐다. 4이닝 2피안타 3볼넷 2탈삼진 1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한 김광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3.06으로 낮췄다.

김광현이 적은 점수를 주며 버틴 세인트루이스는 4-1로 메츠를 꺾고 6연승을 내달렸다.

배턴을 이어받은 양현종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전에 선발 등판해 3⅓이닝 4피안타 8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2.25로 조금 올랐다.

양현종이 잡아낸 삼진 8개는 한국 출신 투수 선발 데뷔전 최다 탈삼진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박찬호(은퇴)와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각각 작성한 5개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이 5일(현지시간)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텍사스 레인저스 양현종이 5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불펜 등판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양현종은 첫 선발 기회를 잡은 이날도 실력을 발휘했다.

1회부터 삼진 3개로 궤조의 출발을 했고, 2회 미치 가버에게 좌월 솔로 홈런을 하나 맞았지만 흔들림 없이 피침을 이어갔다.

1-1로 맞선 4회에는 고비가 찾아왔다. 양현종은 안타와 2루타를 연거푸 맞아 무사 2, 3루에 몰렸다. 제구가 흔들리면서 가버를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 무사 만루에 놓였다. 양현종은 플랑코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면

서 한숨을 돌렸다.

텍사스는 계속된 1사 만루에서 투수를 큰 곤경으로 교체했다. 김이 점수를 주지 않고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내면서 양현종의 실점은 늘어나지 않았다.

텍사스는 3-1로 이겼다. 양현종은 일찍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지만 초반 삼진 퍼레이드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 주는데 성공했다.

김광현과 양현종은 KBO리그 좌완 양대 산맥을 이루던 투수들이다. 이제는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뽐

내고 있다.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를 쬐잔 김광현과 함께 양현종도 메이저리그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는다면 '코리안 데이'는 앞으로 더 자주 열릴 수 있다.

한편 양현종은 이색 기록으로 텍사스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텍사스에 따르면 3⅓이닝 동안 8개의 탈삼진을 뽑아낸 이는 지금까지 딱 한 명 있었다. 1980년 8월 17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전에 두 번째 투수로 나선 대니 다윈이 양현종과 같은 3⅓이닝 8탈삼진 경기를 펼쳤다.

3⅓이닝의 아웃 카운트는 10개다. 이중 8개를 삼진으로 정리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다.

무서운 기세로 초반부터 탈삼진을 쏟아낸 양현종은 41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최다 삼진 기록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텍사스 역대 최고령 선발 데뷔 기록도 양현종의 몫이 됐다. 이날로 꼭 33세 65일이 된 양현종은 2017년 6월 1일 오스틴 비벤스 더크스의 32세 32일을 제치고 최고령 첫 선발 투수로 우뚝 섰다.

뉴시스

영암군민속씨름단 오창록, 해남장사씨름대회서 통산 8번째 한라장사 등극

역동적·화려한 기술씨름 진수 선보이며 깊은 인상 남겨



영암군민속씨름단은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해남군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차 민속리그 2021 해남장사씨름대회에서 오창록장사가 한라급 왕좌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암군 민속씨름단 오창록장사는 8강에서 최정훈(태안군청)을 2대0으로 가볍게 누르고, 준결승전에서 정상호(제주특별시청)를 2대0으로 제압한 데 이어, 16강부터 준결승전까지 단 한점도 내주지 않고 결승전에 진출하여 김민우(수원시청)전 수를 3대 1로 꺾으면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대회의 우승으로 오창록장사는 개인 통산 8번째 우승을 거뒀으며 지난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이어, 올해 2관왕에 오르게 되었다.

이로써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총 40회 우승(장사 35회, 전국체전 금메달 2개, 단체전 3회)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의 명성을 이어나갔다.

또한, 영암군민속씨름단의 탁월한 기량을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화려한 기술씨름의 진수를 보이면서 전국의 씨름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를 통해 영암군의 특산품인 매력한우와 달마지쌀 등 우수농·축·특산물을 시청자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면서 지역 홍보 도우미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오창록 장사의 등극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이 대한민국 씨름계를 이끌어 나갈 주역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결과였으며 이번 성과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군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이 계속해서 가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영암군 홍보대사로서 지역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데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암=조태호 기자



전국의 역도인들, 강진으로 모인다

제80회 문곡 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 12일까지 강진군서 개최

강진군은 5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강진군실내체육관에서 '제80회 문곡 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한역도연맹이 주최하고, 전남역도연맹이 주관하며, 전종별(중·고·대·일반부) 선수와 임원 등 600여 명이 참가해 개인전, 단체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곡 서상천배 대회는 한국 역도의 아버지로서 불리는 문곡 서상천 선생을 기리기 위해 대한역도연맹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동호인부를 신설하여 역대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과거 이형근, 최동길, 황호동 선수를 배출한 역도의 메카인 강진군은 안

전한 대회 유치를 위해 선수단이 강진군에 도착하기 3일전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고, 무관중 경기 진행, 동호인 대회 취소,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방명록 및 방역대장 작성 등 코로나19 확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은화한 기후와 웨이트 트레이닝센터 등 스포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의 최적지"라면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강화하면서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도시 강진'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전남체중 나중빈, 체조선수권대회 2관왕 달성



전남체중 체중팀 나중빈(3년)이 올 시즌 첫 대회에서 개인 경기 금메달과

단체전 우승을 이끄는 2관왕 금자탑을 쌓았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에 따르면 나중빈은 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제76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중부 기계체조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기계체조 링에서는 13,300점을 획득하며 2위 김태양(인천 조은중, 12,150점)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철봉에서는 11,750점으로 1위 김민중(대전체중, 12,200점)에, 종합에서 총 70,850점을 획득하며 1위 김태양(72,500점)에 밀린 아쉬운 은메달을

전국체조선수권 금·은2개

"올시즌 첫대회 좋은 성적"

각각 획득했다.

개인종합 2위에 오른 나중빈은 개인종합 성적을 합산한 단체종합에서 팀 동료 김한성(65,600점, 6위), 오재준(63,850점, 11위), 김선우(63,900점, 10위), 김아준(27,750점, 42위)의 기록을 합산한 단체종합 성적 1위를 차지하며 전북체중(2위)과 포항제철중(3위)을 누르고 2관왕을 달성했다.

전남체중협회 홍성만 전무이사는 "올 시즌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열악한 훈련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민정 기자

여자컬링 팀킴, 세계선수권서 연장 끝 한일전 승리

14개팀 중 10위(4승6패)...6위까지 베이징 티켓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강릉시청)이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한일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승리했다.

김은정(스킵), 김선영(리드), 김초희(세컨드), 김경애(서드), 김영미(후보)로 구성된 팀킴은 6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2021 세계여자컬링

선수권대회 예선 라운드론 10차전에서 일본의 팀 요시무라(스킵 요시무라 사야카)를 9-8로 이겼다.

8-7로 앞선 채 10엔드에 들어갔던 팀킴은 8-8 동점을 허용하며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연장 11엔드에서 팀킴은 결승점을

획득하며 극적으로 승리를 따냈다.

앞서 열린 9차전에서 덴마크의 팀 두폰트(스킵 마넬레이네 두폰트)에 4-8로 졌던 팀킴은 일본을 이기며 4승 6패를 기록했다. 14개 팀 중 10위다.

이번 대회는 6강 플레이오프에 들어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딸 수 있다.

팀킴은 앞서 스위스, 러시아컬링연

맹(RCF), 미국, 독일, 캐나다에 져고,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에 승리했다.

9승1패로 1위인 러시아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된 가운데 스위스(8승 1패), 스웨덴(7승2패), 미국(6승4패), 스코틀랜드(5승4패), 캐나다(5승5패)가 6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팀킴이 6위 안에 들려면 남은 중국(4승4패), 스웨덴, 체코(이상 3승6패)전을 모두 이긴 뒤 다른 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토트넘 떠난 무리뉴, 보름 만에 일자리 구해

이탈리아 세리에A AS로마 감독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물러난 조세 무리뉴 감독이 보름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A AS로마 감독으로 새 일자리를 구했다.

AS로마는 5일(한국시간) "무리뉴 감독과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 계약을 맺었다. 2021-2022시즌부터 지휘봉을 잡는다"고 전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을 이끄는 무리뉴 감독은 지난달 19일 경질됐다. 보름 만에 재취임에 성공한 것이다.

AS로마는 무리뉴 감독에 대해 "메이저대회 트로피 25개를 획득한 스포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무리뉴 감독은 FC 포르투(포르투갈), 첼시(잉글랜드), 인터 밀란(이탈리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이상 잉글랜드) 등에서 감독을 지냈다.

무리뉴 감독은 "위대한 클럽을 이끌고, 그들 비전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며 "로마 팬들의 놀라운 열정이 나를 이끌었다"고 했다.